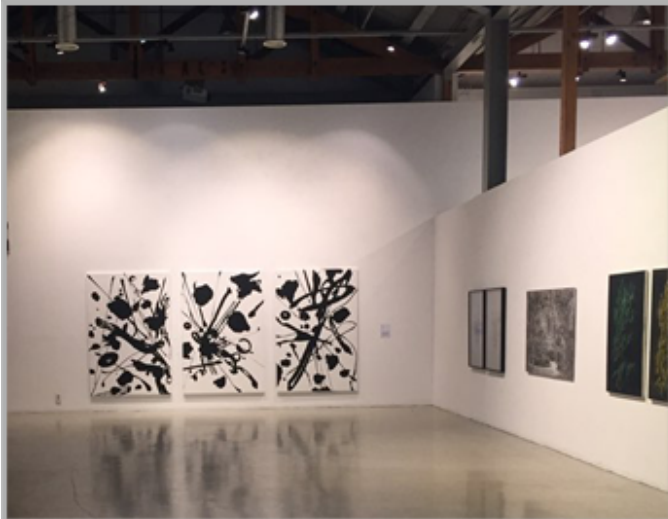


□□□ □ □□,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
 □□□

□□□ □ □□,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
 - □□□□□□ 2016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<□ □□□>



□□□□□□ B□ □□□□□□ 9□ 25□(□)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 Wet Paint□□ □□
 □□ □□. □□ □□□□ Wet Paint□□ 9□ 23□(□) □□ 25□(□)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
 □□□□□□ 2016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 □ □□ □□□□. □ □□□ □ □□□ 6□□ 34□(50
 □) □□□□ □□, □□,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, □□, □□, □□, □□ □□ 40□□□□ □□
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.

이 프로젝트는 Wet Paint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관객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



프로젝트 소개

이 프로젝트는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관객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.

이 프로젝트는 10~5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<Would you be my model? in Incheon>로 진행된다.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. 이 프로젝트는 '모델'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 이 프로젝트는 '모델'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 이 프로젝트는 '모델'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



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숲의 모습은 실제 자연에서 촬영된 이미지로, 색조는 청록색으로 처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이 작품은 관객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, 자연을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또한,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숲의 모습은 실제 자연에서 촬영된 이미지로, 색조는 청록색으로 처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이 작품은 관객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, 자연을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작품의 의미

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숲의 모습은 실제 자연에서 촬영된 이미지로, 색조는 청록색으로 처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이 작품은 관객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, 자연을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또한,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숲의 모습은 실제 자연에서 촬영된 이미지로, 색조는 청록색으로 처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이 작품은 관객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, 자연을 사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



[콜로키움 들여다 보기]

8월 26일(금), 오후 2시부터는 B동 전시장에서 연계전시<젯 페인트 WET PAINT>의 시작을 알리는 콜로키움 '연계의(불)가능성_ 동시대 미술의 단면들'이 진행되었다. 본 콜로키움은 올해 입주 작가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적 키워드를 바탕으로, 동시대 미술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단면들과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였다. 이 프로그램은 인천아트플랫폼 현 입주 작가이자 미술비평가인 김홍기와 함께 기획되었으며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았다. 김홍기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본 행사는 1부에서 '가면의 고백_불안사회의 초상'라는 주제로 정현(인하대학교수, 미술비평가)교수가, '여자의 노종/작업, 새로운 이름'이라는 주제로 미술비평가 현시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. 2부에서는 전시기획자 채은영이 '매체의 재/전유, 상황적 풍경'을, 미술비평가 구나연이 '포스트모더니즘 그 이후, 또는 '후(後)'라는 착시'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. 콜로키움은 위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 광범위한 동시대 미술의 맥락과 이슈를 점검하고 (재)배치해 보고자 하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.